

시

물의 악공들

김정현

시리아 굶주린 혈(血)의 사막에서 금빛 모래사장 해변의
 춘곤증자들에게
 창백한 시체가 한 조각 잘린 구름으로 떠밀려올 때
 견고한 일상의 고딕 질서를 덩어리째 뒤집어쓴 도시
 사람들은
 아주 잠깐 경악한다 경쾌한 악당 같은
 미디어의 총명한 리듬은 조심스레 끝났고 스무 살
 열사병,
 비릿한 합주를 나눴던 별거숭이 몽상가들마저
 순순히 날 선 악곡(樂曲)을 포기하고 거리로 집결했다
 관현악단 같은 햄릿들로
 거대한 복수를 꿈꾸던 어릿광대들과 리어처럼 선명히
 울부짖을 미치광이들은
 이미 쓰레기 가득한 거리에 당도했고 간밤 골목마다
 신명나던 두드림,
 팻줄 같은 구도로 조율 당한 오페리아들은 누굴 위해
 저리도 침묵하나 지난 계절
 아무도 돌아오지 못할 악공(樂工)이 돼버린 소년소녀
 들은

제일 아름다운 물의 파동으로 우리의 동공을 적셔대는데
 관(管) 같은 고통은 현(絃)의 비명은 끝까지 살아남아
 살아있는 자들의 금 심장을 날카롭게 연주해두 네
 구도 화음 낸 적 없는데
 누구나 펼치화음인 사람들 오래전 강을 건넜던 백수
 광부의 그림자처럼
 낫빛들 어둡했다 저 멀리 바닷바람이 붉은 산호처럼
 뻗쳐 와도
 바닥의 가장자리마다 고요히 쌓여 있는 물의 영혼들
 가느다란 여음(餘音)에도 휩쓸리지 않으려
 악공들 모두 기슭을 간신히 부여잡고 온몸을 떨고만
 있는데,

경찰 차단선이 순식간에 벽을 쳤다 다시금 주춤 쌓아 올렸던
 숨통이 통으로 나뉘었고 머리통은 으깨졌다 미치광이들과 어
 릿광대들이 찢어지자 분노는 산산조각 나고 눈먼 오페리아들만
 이 거리에 남아 안티고네처럼 울부짖었다 그러나 지난밤처럼 늑
 어버린 내 영혼은 모델 난간에 기대선 채 한밤의 열기를 한가로이

관망했다 돌맹이가 날아들기도 했지만 나는 운 좋게 상처 하나 없
 다 이내 살수차가 물대포를 시연하자 누군가의 연설은 깨끗하게
 뭉개졌고 최루액에 도약질하던 학생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가까
 스로 시위대열에서 이탈한 노동자와 첫 의무를 이행하던 의경은
 공사(工事) 중인 상가에서 마주쳤다 너무나 각목이 수직으로
 빛났고 시멘트는 지루할 만큼 천천히 굳어가고만 있었다 하지만,

아침에 나를 눈 뜨게 한 건 햄릿이 아니었다 리어가
 아니었다 오페리아도
 시위대도 아니었다 단지 춘곤 가득한 내 호흡이었다
 찢김 눈물 한 방울의
 아직도 선연한 비극을 미디어는 밤낮없이 이국(異國)의
 해변에서 송출하고
 모래 속 조그마한 얼굴을 문고서 끝없이 바다를 향하
 는 어린 시체는
 아무런 말이 없다 나는 기어이 리드미컬,
 어젯밤 팻줄을 허밍으로 흘려대며 담배를 입에 가져가는
 데
 거리의 소란했던 혁명마저

담담히 쓰레기 자루 속으로 쓸어 담은 저 사람은 누구
 일까
 다시금 어느 해변으로 한 구의 시신이 푸르스름하게
 떠밀려오고
 나는 먼지투성이 밤거리가 화염으로 솟구칠 때마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할 악공을 꾸민 했다 그런데
 그 꿈을 정말 악몽이라 해야 할까
 악공들이 한가로이 모래찢질하던 날 불들곤 파도처럼
 바다를 커며 앞으로 나아가고
 포말처럼 다시 바닷속으로 빨려들던 물속의 푸가를
 난간 밖으로 담배꽂이는 자유롭게 튀겨 나가고
 나는 더 이상 세계의 깊이로는 도무지 빠지고 싶지 않
 아
 부드럽게 출렁이던 물짐대를 조율하려 또다시 모델로
 기어들어 간다
 낮잠은 지옥만큼 나를 끌어당기고
 나는 전국 같은 이 단단한 세계가 하루의 시작처럼 아
 주 조금 마음에 든다

동화 부문 당선 소감



신수나
 ▲충북 청주 출생
 ▲충북대 철학과 졸업
 ▲2012 장생도 고래 창작동화
 최우수상 수상
 ▲2016 충성대문학상 수필 최
 우수상 수상

“동화의 즐거움 많은 아이와 나누고 싶어”

쓰는 것보다는 읽는 것으로 동화와 인연을 시
 작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좋은 동화를 읽어주고
 싶다는 의욕에 먼저 동화 읽는 어른이 되었으니
 까요. 10여 년 가까이 지역 동화 읽는 어른 모임
 에서 활동하면서 세상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이 있구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히 이야기를 써 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
 요. 어느 날 남편이 문더군요. 동화 모임을 하면
 서 왜 동화를 쓰지 않느냐고. 그때까지도, 난 그
 날 동화 읽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웃고 말았습
 니다. 그런데 정작 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가 뒤
 늦게 쓰고 싶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
 이들과 누리던 동화의 즐거움을 이제는 더 많
 은 아이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
 로요.

언젠가 한 강연회에서 어느 동화작가가 한 말
 이 생각납니다. “동화작가는 동심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심을 무한히 추구하는 사람이
 다”
 제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되뇌던 말입니다. 내
 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늘 반신반의 했는데, 당선을 계기
 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많이 부족한 제 글을 뵈
 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습
 니다.
 제가 동화를 꾸준히 쓸 수 있도록 도와준 동
 화창작 모임 ‘그 아이’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
 니다. 영원히 함께 성장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어린이가 달려들 격려와 질책으로 가르침 주신
 정임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시 부문 당선 소감



김정현
 ▲장흥 출생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
 작학과 석사 수료
 ▲제 15회 신작희곡페스티벌
 당선

“기꺼이 앓고 싶은 시라는 열사병”

기차를 탔다.
 새들은 날개 없이도 날아올랐고 나는 열차의
 지붕 위에서 잠이 들었다.
 부러진 갈비뼈가 열차와 열차 사이로 떨어지
 는 동안 갈라진 손톱들은 새로 돋아났지만 기차
 는 달리고 또 달려 기어이 세계의 끝에 당도하
 곤 했다.

‘우리’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나’가 될 때마
 다 저는 곤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는 언제나
 푸르스름하게 제 주위를 맴도는데 저는 어렵게
 시의 꿈무늬를 잡았다가도 너무 쉽게 놓쳐버리
 곤 했습니다. 최첨단의 시대에 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이 벌써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저는 가만히 모른 척하기

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어이 시라는 쓸모
 없음을 매혹당하기를 바라고 기꺼이 시라는 열
 사병을 한 번이라도 더 앓고 싶은 것입니다.
 최두석 선생님, 최수철 선생님, 임철우 선생
 님, 서영태 선생님, 주인석 선생님, 조동범 선생
 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사라 선생님, 김미
 도 선생님, 박금산 선생님, 신연우 선생님, 최승
 호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걸 알지
 만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김지순 누님,
 오호진 선배, 이승영님, 김새봄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부족한 글을 선택해주
 신 나희덕 선생님께는 감사의 마음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해봅니다. 마지막
 으로 어머니와 누나를 사랑하는 조카들과 함께
 천천히 시를 써나갈 것입니다.

동화 부문 심사평



윤삼현
 ▲조선대 대학원 졸업
 ▲1988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아동문학과 겸임교수
 ▲작품집 ‘백년을 기다린 내나
 무꽃’ 등 다수

“상징적 주제가 일으키는 감응력 뛰어난”

지난해보다 대폭 양적 증가를 보인 동화 응모
 경향을 보며 내심 기대를 했지만 수작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주로 보내는 편지’는 서정적 시간문 형식의
 동화다. 별을 좋아하다 사경을 헤매는 삼촌의 깨
 어남을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작품이다. 동화적
 틀을 세워 전개했다하면 아쉬움을 보였다. ‘마법
 신발을 신어 봐’는 신발을 일인칭 화자로 설정한
 특색있는 작품이다. 문장은 안정되어 있으나 평
 이한 구성 혹은 도식적인 몇몇 장면이 거슬렸다.
 ‘삼둥이네 파란색 리본 공인형’은 아파트 단
 지의 갈등과 대립을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아

파트 단지를 이분법적 대립으로 그려낸 시각이
 자주 걸렸다. 동화의 본질이 통함과 위로와 희
 망이란 점에서 그렇다.
 ‘호통버스’는 간결한 문체, 자연스런 전개가
 인상적이었다. 할머니의 실종 사건은 노인 문제
 를, 학원가로 종일 뛰어다니는 주인공의 심리적
 억압은 아동문제를 상기시킨다. 이중주제의식
 의 효과를 전라화한 작품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소 평이한 구성이나 노인 실종 이야기
 가 새로운 소재가 아니지만 ‘호통버스’라는 상
 징적 주제가 일으키는 감응력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되어 당선작으로 낙점하게 되었다.

시 부문 심사평



나희덕
 ▲연세대 국문과·동 대학원 박
 사과정 졸업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등단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 다수

“아름다운 파동 일으키는 노래 이어지길”

예심을 통과한 15명의 작품 중에서 마지막까
 지 남겨진 것은 김정현, 한형석, 김정식의 시들
 이었다.
 김정식의 시는 간결한 구어체를 구사하며 독
 자를 자연스럽게 시적 공간으로 끌어들었다. 사
 같이나 천경자 등 회화를 모티프 삼아 예술적
 감각과 조형미를 보여준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작품세계가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
 을 수 없었다. 한형석의 시는 감정을 조율하면
 서 언어적 긴장을 끝까지 밀고나가는 힘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을 가두는 틀을 과
 감하게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에 비해 김정현의 시는 이미지의 전개가 활
 달하고, 원심력을 지닌 시행들이 시적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간다. 왓은 직유와 산문적 호흡
 은 시를 약간 산만하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그
 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락을 놓치지 않고 독
 자를 어느 낯선 지점에 정확히 데려다 놓는다.
 당선작으로 뽑은 ‘물의 악공들’ 역시 시리아의
 사막에서 시작된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실 곳
 을 돌아다니며 “바닥의 가장자리마다 고요히
 쌓여있는 물의 영혼들”을 불러낸다. 앞으로도
 그의 노래가 아프고 아름다운 파동으로 “우리
 의 동공을 적셔”주기를 바란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산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